

삼국시대 : 등항(燈缸)



등항은 항아리 형태의 등잔을 이르며,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물이 매우 드물긴 하지만, 옛 기록 가운데 더러 그 용어를 찾아볼 수 있다. 일연(一然)이 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제5 <피은(避隱)> 제8 낭지승운(朗智乘雲) 보현수(普賢樹) 조(條)에 따르면, <영취사기(靈鷲寺記)>에 낭지(朗智)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 암자자리[혁목암(赫木庵) 터]는 가섭불(迦葉佛) 때의 절터이며, 땅을 파서 등항(燈缸) 두 개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다.¹⁾

여기에서 등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등(燈)으로 미루어 보건대 항아리 모양의 토기나 돌로 된 등잔일 가능성이 크다. 토기는 당시 가장 두드러진 그릇의 재료이고, 돌은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이다. 돌 등항은 그 지역이 화강암 분지의 지형을 띠고 있어 추론한 것인데, 실제 등항이 나왔다는 <삼국유사>의 혁목암 터 일대에는 곳곳에 많은 화강암 바위들이 즐비하다. 등항은 화강암 가운데 둥글고 단단한 돌, 즉 핵석(核石)일 것이며, 화강암이 땅속에서 풍화될 때 모서리의 모든 부분이 떨어져 나간 뒤 둥근 모습으로 남아있는 돌을 말한다. 돌 속이 패여 형태에 따라 항아리 모양, 타원형, 공처럼 둥근 것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띠게 되며, 돌 등항은

사진 ① 토제 항아리형 등잔[土製燈缸]/삼국시대/높이 3.2cm, 입지름 5.6cm/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소장
 사진 ② 백자 항아리형 등잔[白磁燈缸]/조선시대/높이 4.5cm, 입지름 9.4cm, 밑지름 3.9cm/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③ 도제 항아리형 등잔[陶製燈缸]/조선시대/높이 4.5cm, 입지름 8.4cm/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1) 이민수(李民樹) 譯(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3, 381쪽.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등항은 나중에 시대를 거치면서 철이나 청동, 대리석, 납석(蠟石), 자기, 질그릇 등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질그릇으로 만든 등항은 조선후기 추사(秋史)의 <벽해타운첩> 편지 글에서도 확인된다.²⁾ 추사가 초의선사(草衣禪師)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에는 제주에서 말을 타다 엉덩이에 큰 상처를 입었던 초의가 완쾌 되지 않은 채 두류산 대흥사(大興寺)로 돌아갔는데, 추사는 성치 않은 몸으로 돌아간 초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초의로부터 서신을 받고 애뜻한 마음과 함께 등항과 안경을 하인 편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추사는 “하인 편에 보낸 등항은 철로 부리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겠는가[燈缸茲以奉送便 以鐵嘴補完如何]”라고 묻고, 자목련과 돌 네 점, 오곡(五穀)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신으로 추사가 보낸 안경의 효험에 대해 묻고 있다.

등항을 철로 부리를 보완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등항 부리 부분이 파손되거나 약해서 보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등항을 쓸 때 등잔걸이에 걸어 사용해야 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쓰기 위해 철로 부리(등잔 가장자리 입술부분)를 감싸서 쓰라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정황상 아마도 뒤쪽 견해가 훨씬 수긍이 가는데, 물건을 보내면서 일부러 파손되거나 깨어진 것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등항을 사용해본 경험에서 추사는 더욱 안정적이고 적절히 쓰는 방법을 고려하여 그 방안을 일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질그릇 등항의 종류는 조선시대 유물 가운데 등잔 걸이와 함께 쓰인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 사진 및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한국 고대의 토기>, 1997.
- 디 아모레 뮤지움, <디 아모레 뮤지움 소장품 도록>, 2005.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디 아모레 뮤지움, 온양민속박물관, 호림미술관, 호암미술관
-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도록>, 1988
- 온양민속박물관, <金泰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④ 도제 향아리형 등잔[陶製燈缸]/조선시대/높이 6cm, 입지름 8.8cm/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⑤ 등울에 올려진 등항/높이 85cm/한국등잔박물관 소장

2) 이 편지는 추사가 1843년 10월 10일에 쓴 편지로서 <벽해타운첩>이 발견되면서 확인되었는데, 추사의 <완당전집>, <여초의> 19신에도 소개되어 있다.